



무차별 총기난사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Bataclan 극장 앞에서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 [사진제공: 프랑스 파리 송석배·김은영 선교사]

“필그림교회 PCUSA탈퇴 결의”

공동의회98%찬성...1256명 투표 중 찬성 1233명

뉴저지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인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가 15일 임시공동의회를 열고 ‘미국 장로교단으로부터의 분리 요청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 98%의 찬성으로 교단 탈퇴를 결정했다. 이날 임시공동의회에서는 총 유효투표수 1,259표 중 찬성 1,233표 반대 26표가 나왔다. 이 같은 수치는 근래 이뤄진 PCUSA 소속 한인 교회들의 교단 탈퇴 투표 중에서 가장 높은 찬성율이다.

필그림교회는 오전 11시 주일에 배 후 임시공동의회를 진행했으며 갈보리채플과 샬롬 친교실에서 투표를 실시했다. 동부한미노회가 이 교회 교단 탈퇴 과정에서 행정전권위원회를 파송, 난항을 겪었던 필그림교회는 최근 노회 측의 행정전권위 파송유예 결정과 이번 공동의회에서의 압도적인 탈퇴 찬성으로 힘을 받을 전망이다. 김대원 기자

세계 교계, 테러 규탄·희생자 위한 기도 요청

IS 파리 동시다발테러에 성명 발표...“사랑과 공화 보이자”

이슬람국가(IS)가 프랑스 파리에서 극악한 동시다발테러를 일으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세계교회가 테러리즘을 규탄하고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롯해 어떤 종교의 이름으로도 잔혹한 테러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며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은 종교에 대한 폭력”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침례교회연맹도 “이번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들을 비롯

해 정부와 의료진, 군경과 군목, 프랑스, 그리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것을 천명한다”며 “미움과 증오에 사랑을 보이고, 두려움과 공포에 공화를 보이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도하며 연합하자”고 했다. 미국 베들레헴침례교회 원로인 존 파이퍼 목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피의 보복으로 천국에 간다고 믿는 당신들은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가”라는 글을 올렸고, 빌리그래함복음주의협회 대표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도 자신의 SNS에 “테러리즘과 이슬람이 관계가 없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라. 이번

테러는 이슬람 신인 알라의 이름으로 자행됐다”고 했다. 한편,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프랑스 파리의 공연장과 축구경기장 등 6곳에서 총기난사와 자살폭탄공격 등 최악의 동시다발테러가 발생, 18일 현재 사망자 132명, 부상자 349명, 그 중 중태자가 96명인 것으로 발표됐다. 테러 직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던 프랑스는, 14일부터 3일 동안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연일 시리아 IS 본거지를 맹공격에 나섰다. 강혜진 기자

“하나되는 뉴욕교협 보여 줄 것”

뉴욕교협 제42기...회장 이종명 목사 체제 출범해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 42회기 시무예배 및 회장·임실행 위원·30대 이사장 취임예배가 16일 오전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개최, 회장 이종명 목사(뉴욕강성장로교회 담임) 체제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이종명 목사는 이날 취임소감을 통해 한인사회와 교계의 구심점이 되는 교협,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협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명 목사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에 무한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의 소감을 먼저 밝혔다.

종교다원주의, 이단사이비가 난무하는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 준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협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뉴욕은 초대 한인회장을 목회자가 맡아서 시작했다. 뉴욕 동포들의 영적인 지도와 아울러 견인차 역할을 했던 뉴욕교협이 뉴욕동포사회에 길을 비추고 길잡이 되는 등대가 되겠다”면서 “구심점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회원들간의 화합과 관련해서는 “축사 권면 중에도 말씀이 나왔는데 뉴욕에 많은 교단들이 있고 회장, 부회장 선거 때마다 대립을 보였지만 미국 대선을 생각하게 됐다”면서 “선거가 끝나면 서로 격려하고 자기를 비난한 사람도 포용하는 것이 미국 정치의 아량인 것 같다.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로 갈 수 있는 교협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에 계속]

이종명 목사는 “그동안 선배 목사님들이 40여 년동안 이룩한 아름답고 좋은 전통을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서 뉴욕교협이 한층 성장하고 무궁한 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퇴색돼 동성결혼, 세속화, 인본주의, 혼합주의, 신비주의,

“남가주한인목사회장에 엄규서 목사 선출”

수석부회장은 또 공석...신임회장과 임원진에 위임해

최근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총회에서 2년 연속 수석부회장이 공석되는 사태를 맞이한 이래, 이번에는 남가주한인목사회도 2년 연속 수석부회장 출마자가 없어 수석부회장을 뽑지 못하는 위기에 직면했다. 남가주 교계의 인물

부재 위기가 교계 양대 단체의 발목을 제대로 잡은 셈이다. 먼저 남가주교협의 경우, 현 45대 최혁 회장은 44대 박효우 회장의 임기 중에 공천위원회에 의해 수석부회장에 공천, 선출, 임명돼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수석부회장 임기를 보내고 회장이 됐으며 현 수석부회장인 강신권 목사는 최혁 회장에 의해 4개월 전 수석부회장에 지명됐으나 현재 공천위의 벽에 가로막혀 46대 회장에 출마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 파리 IS테러 현지 선교편지 [관련기사 11면에 계속]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개발·토렌스, 엘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Ivydream.com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 목회학박사(D.Min.)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1월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OC기평연 정기총회” 개최

사역보고 및 윤우경 회장 연임 확정

오렌지카운티기독교평신도연합회(이하 OC기평연, 회장 윤우경 집사) 제36회 정기총회가 15일(주일) 오후 4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이사 및 임원 등 대의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1부 예배와 2부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윤우경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는 33대 이사장 신복수 장로의 대표기도, 노정도 목사(OC기평연 자문위원)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눅17:5-10) 주제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고, 양문국 목사(OC기평연 초대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정기총회는 의장인 윤 회장

의 사회로 시작되어 2015년도 결산보고 및 회장 선출, 정관 개정 등에 관한 표결이 진행됐다.

윤 회장이 직접 설명한 사역보고에 의하면 OC기평연은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행사를 통해 모아진 헌금을 부모님 선교회, 말라위 결식아동 어머니들을 위한 지게 제작 기금, OC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시드머니, 통일 기금 등으로 전달한 점이 눈에 띄었다. 또한, 장학기금 지원 등은 임원들이 직접 동참할 정도로 활발한 평신도 사역에 동참했다.

신임 회장 선출에서는 증경회장 및 증경이사장단이 사전에 추천받은 후보에 대해 별도 논의, 1인 기권, 나머지 찬성으로 윤우경 현 회



정기총회를 마친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앞줄 왼쪽으로부터 네 번째)윤우경 회장.

장을 일 년 더 연임키로 하고 신복수 이사장이 총회에 인준 요청, 총회에서 만장 일치로 통과됐다. 이로써 윤우경 제36대 OC기평연 회장이 공식화됐다.

윤우경 회장은 “올 한 해 섬기는 동안 부족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

구하고 믿고 협력해준 이사장과 이사회에 감사한다. 함께 수고한 회장단과 임원 모두 다음 회기에서도 그대로 함께 섬기게 될 것이며 각 교회의 대의원 확보를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는 OC기평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인

사를 대신했다. 34대 신임 이사장은 오는 28일(토) 개최 예정인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신임 회장 및 이사장 이취임 예배는 오는 12월 20일(주일) 오후 4시 예정이며 장소는 미정이다. 이영민 기자



남기주한인목사회가 49회 정기총회를 열고 (앞줄 왼쪽으로부터 일곱번째) 엄규서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남기주한인목사회 정기총회...회장 엄규서 목사 선출”

[1면으로부터 계속] 남기주한인목사회도 지난 48회 총회에서 수석부회장 출마자가 없었고 총회는 ‘공천위 후보 추천, 회장 결정’으로 결의했는데 48대 백지영 회장은 다행히 지난해 11월 17일 총회 후 한 달 만인 12월 14일 취임식 전에 엄규서 목사를 수석부회장으로 발탁한 바 있다. 덕분에 2015년 11월 16일 월서크리스천교회에서 열린 49회 총회에서는 엄규서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무사히 승계하게 됐지만 그 역시 수석부회장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짐을 안게 됐다.

남기주한인목사회 정기총회에서 공천위는 수석부회장 선출의 문제

에 관해 “신임회장과 임원진에 위임하고 공천위의 심의를 받기로 한다”고 보고했으며 총회원들은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서는 교계의 인물 부재 현상에 대한 위기감이 강하게 대두됐다. 특히 남기주교협은 2년 연속, 총회에서 수석부회장을 뽑지 못한 사태가 결국 회장 선출에까지 막대한 지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남기주목사회도 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총회에서 설교한 이운영 목사는 “우리 형제 단체가 회장 후보를 공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고 회무 처리 시

간에 서요한 목사는 “회장 후보, 수석부회장 후보의 발전기금 금액을 줄여 많은 사람들이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따라서 총회는 발전기금과 관련된 정관을 수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했다. 현재 회장 후보는 5천 달러, 수석부회장 후보는 3천 달러를 기탁하게 되어 있다.

엄규서 신임회장도 취임사를 통해 “목회자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쓰임 받고 교계 정상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25명 목사 회원과 이사장인 김재권 장로가 참석했다.

김준형 기자



제2회 '사랑의 침낭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베레카선교회 임원들.

“침낭에 주님사랑 담아 전해요”

베레카선교회(대표 최명균 목사)에서는 추운 겨울철을 맞아 홈리스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제2회 사랑의 침낭 보내기 운동' 설명회를 13일 LA한인타운 한 식당에서 개최했다.

이 선교회 대표 최 목사(사진·맨 왼쪽)는 이 운동 전개 목적에 대해 “추운 겨울밤, 많은 홈리스들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뿐인 거리나 공원 한쪽에서 웅크린 채 잠자는 모습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다. 그런 그들에게 작은 침낭 하나라도 나눠주며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을 견디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이 운동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해부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전개한 이 운동에서는 홈리스들이 비교적 많이 모여 있는 세 곳의 지역에서 230여 개의 침낭을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다. LA다운타운, 산타애나 시빅센터 주변, 오렌지카운티 부에나비자 셀터 등 세 곳에서 나눠줬다. 올해도 12월 18일(금), 26일(토), 27일(주일)에 걸쳐 침낭 나눠주기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후원문의는 714-392-1916이다. 이영민 기자



사랑나눔선교회가 샌버나디노 지역 노숙자들을 섬기고 있다.

“사랑나눔선교회...120여 명 노숙자들에게 사랑 전달”

사랑나눔선교회(대표 이춘준 목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노숙자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다.

올해로 벌써 17번째 샌버나디노 지역의 노숙자를 그리스도 사랑으로 섬겨온 사랑나눔선교회는 지난 14일 오전 일찍부터 의료선교와 함께 사랑의 쌀, 사랑의 음식, 사랑의

점퍼 등을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이춘준牧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서로 나눌 때 더욱 더 풍성해진다”며 “매년 하는 사역인데 많은 회원들과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했고, 올해는 특별히 120여 명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 줄 수 있어

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사랑나눔선교회는 최근 LA 센터도 개소하고 사역 지역을 넓혀가고 있다.

*주소: 929 S. Westlake Ave. Los Angeles, CA90006 *전화: 951-966-9191

목사장로 부부 찬양단

제8회 정기연주회

2015년 11월 29일 (주일) 저녁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 (323)931-1087
 4350 Wilshire Blvd., LA, CA 90010 문의: 강평근 목사 Tel: (818) 468-8672 · 무료입장

목사장로 부부 찬양단
www.pecpc.com

단장
정운무 목사

지휘
전중세 교수

반주
엘민박

| 특별 출연 |

소프라노
박경숙 시모

바리톤
박재승 목사

오펜
임경예

표이름 남성성교 중창단

지휘
서문욱 목사

반주
송지영

본능을 따르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한 순간에 죄를 짓고 철창신세가 된 담장 너머의 사람들. 태초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간은 자력으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길 없는 존재이고 모태에서부터 뱀속 깊이 죄인임을 믿는, 또 특정 환경에 놓이면 깨질 수밖에 없는 돌처럼 누구나 예외 없이 조건만 마련되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을 정도로 정직한 자기성찰을 할 줄 아는 크리스천들이라면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으리라. 하지만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것과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그들을 돕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다. 미국 내 여러 교도소와 유치장의 한인들을 찾아다니며 길과 진리, 생명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특수목회를 20년 가까이 해 온 ‘큰사랑선교회(City of Refuge Mission Center) 김운년 목사가 귀한 이유다.



큰사랑선교회 멤버 모임에서 김운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감옥에 갇힌 한인들에게 자유의 복음 전파

■ 저 낮은 곳을 향하여

교도소 사역 20년 큰사랑선교회 김운년 목사

대기업 간부 출신으로 1982년 미국에 온 뒤 은혜한인교회에서 소명 받고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선교사로서 동구권 사람들을 섬겼던 김 목사가 이 길을 걷게 된 것은 의도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1996년 OC 아동보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정 내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으로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는 수인의 몸이 된 남아를 위탁받아 키우다 입양한 것이 계기가 됐다.

“저희 부부는 배가 아파 낳은 아들 둘과 가슴으로 낳은 막내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 막동이가 울곧게 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당시 뉴스를 듣고 안타까워하던 차에 전도하고 싶다는 부인 신디 김 사모와 함께 유치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를 면회하

**막내아들 입양 계기되어 재소자 돕기 헌신
복음전파 성경공부 교육지원 등 활동 다채
“연말연시 음지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부탁**

면서 인연이 시작됐다. 김 목사는 어린 아들을 찾아봐 달라는 친부의 부탁에 수소문해 아동보호소를 찾았다가 위탁가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처음에는 보호소의 청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던 큰아들의 속 깊은 말에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방상머리에서 한 주간 일어난 일을 나누는데 지금은 변호사가 된 그 아들이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다’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아빠, 기도해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가 제 동생 같아요.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래서 다시 러시아로 가려던 꿈을 접고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막내가 집에 오던 1995년 어린이날, 두 아들이 ‘나도 나이키 운동화가 신고 싶다’는 막내를 데리고 나가 신발을 사 주었고요.”

“세 아들을 기르면서 많이 회개하고 많이 은혜 받았다”는 김 목사는 막내를 데리고 친부를 면회 다니면서 갇힌 한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의 아흔아홉 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큰사랑선교회 김운년 목사.

길 잃은 양을 피 흘리기까지 찾아다니는 목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게 되었다. 선교지가 해외가 아닌 감옥으로 바뀐 것이다. 그는 가주를 비롯, 애리조나, 텍사스, 오하이오, 조지아, 플로리다, 테네시 등 7개 주의 연방 교도소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가주 교도소, LA카운티 및 오렌지카운티 유치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한편 편지로 재소자들의 마음 문을 두드린다.

현재 보살피는 ‘옥중 영혼’들은 170여명에 달한다. 30대도 꽤 있지만 40~50대가 가장 많다. 여성은 10% 가량이다.

그가 섬기는 이들 중에는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1996년의 쌍둥이 언니 살해미수 사건으로 유죄평결을 받고 복역중인 지나 한씨도 있다. 그가 마음으로 자식 삼은 16명의 재소자 가운데 유일한 딸로, 교도소 안에서 준학사 학위도 받았다. 이제 41세가 된 그는 형기(25년~종신형) 중 규정된 기간을 채웠

기에 머지않아 가석방 청문회를 거쳐 자유의 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에 비해 지나친 형을 받았다고 여긴 한인사회가 구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으나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되새기는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앞두고 선교회의 멤버들은 도움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느라 분주하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과 CTS-TV, 뜻있는 독지가들의 지원을 받고는 있으나 재정적으로 늘 허덕이기 때문이다. 100여명의 후원회원이 있으나 활발하게 돕는 이들은 안타깝게도 약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목사는 “한인 재소자들은 많은 경우 가족들조차 가문의 수치로 여겨 외면하기 때문에 타인종에 비해 수감생활이 훨씬 어렵다. 이질적인 문화도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며 연말연시에 커뮤니티가 음지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보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큰사랑선교회는 주 및 연방 정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어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교도소를 한 번 방문하는 데에만도 외부에 비해 비싼 식비, 개스비, 숙박비 등으로 250~500달러가 든다는 그는 “약속한 상금을 1월에 보내기 위해 당장 4,000달러를 모금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털어놓았다. 선교회는 통신으로 성경공부를 하면 1년에 50달러, 독후감을 쓰면 30달러, 구약을 필사하면 130달러, 신약을 쓰면 80달러 등을 재소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다른 특수 사역들은 섬기는 대상의 사진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신분보호 문제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후원자 모집이 더욱 어렵습니다. 재소자 가족들을 신고 20만 마일을 넘게 달린 2005년형 미니밴도 교체가 시급한데...”

70세의 나이이지만 여전히 재소자들의 기쁨 언덕으로서 살면서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약함을 구태여 감추지 않는다.

“이 사역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여러 번 관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아들의 얼굴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를 맡고 계신 박경민 장로님 등 멤버들의 헌신적인 섬김도 눈에 밝히고요”

후원 문의: (714)514-9001

김장섭 전문위원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Earn your Associate degree in just... ONE YEAR!

LAORT COLLEGE
WE PUT EDUCATION TO WORK

- Accounting
- Business Management
- Administrative Assistant
- Phlebotomy
- Medical & Clinical Assistant
- Medical Office Management
- Pharmacy Technology Administration
- Digital Media
- Computer Aided Drafting & Design (CADD)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한국어 상담 그레이스(Grace)
직 통 : T(213)703-6863
Office : T(323)966-5444

WE OFFER:

- Financial Aid and Scholarships are available (for those who qualify)
- Job and Career Placement Assistance
- Day and Evening Classes
- Transportation Assistance
- Student Visa Assistance
- Accredited by ACCET

LAORT.EDU
800 NON-PROFIT SCHOOLS WORLDWIDE
1.800.998.2678

MID-WILSHIRE CAMPUS
643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48

SAN FERNANDO VALLEY CAMPUS
14519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이종명 신임회장(왼쪽)이 이재덕 직전회장(오른쪽)으로부터 교협기를 전달받고 있다.

“뉴욕교협 제42회기 이종명 회장 체제 출범”

[1면으로부터 계속] 직전회장 이재덕 목사는 이임 소감에서 “지난 1년 동안 함께 수고해 준 임원 및 회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면서 “신임임원들이 이끌어갈 다음회기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다”고

격려했다. 이날 함께 취임소감을 전한 이상호 30대 이사장은 “많이 부족한 저를 이런 귀한 직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면서 “2015년 한해 동안 이사장직을 맡아서 했는데 많

이 부족했다. 연단을 시키려 한 해를 더 주신 것 같다. 뉴욕교계를 거듭나게 해주실 수 있는 임원들을 믿고 이사회가 일익을 감당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이사장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 이사장직을 연임해 교협을 위해 섬기게 됐으며, 또 평신도 부회장으로도 봉사하게 된다. 이사장직과 부회장직을 함께 맡은 것은 올해 이상호 이사장이 처음이다.

이날 1부 예배는 2부 이취임식으로 진행됐다. 설교는 특별히 뉴저지의 대표적인 목회자인 양춘길 목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갑시다’(엡 4:15-16)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다. 또 축사는 뉴저지교협 회장 이의철 목사, 증경회장단을 맡고 있는 허걸 목사 등이 나서서 새 임원들이 지역사회와 뉴욕교협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사장로부부찬양단 관계자들. (앞줄 왼쪽부터) 김정자 사모, 정운두 목사, 정선옥 목사, 박재웅 목사, (뒷줄 왼쪽부터) 강은규 사모, 강평근 목사, 박경숙 사모.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정기연주회”

29일(주일) 오후 7시...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목사장로부부찬양단(단장 정운두 목사, 지휘 전중재 교수)이 제8회 정기연주회를 29일(주일) 오후 7시 LA 한인타운 내 월서연합감리교회(4350 Wilshire Blvd. Los Angeles)에서 연다. 이 행사를 앞두고 주요 관계자들이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사를 설명했다. 이 행사에서는 ‘온 세상 위하여’ ‘감사의 기도’ ‘거룩한 주’ 등의 성가곡을 연주하고 이어 ‘목마른 사슴’ ‘내 주의 강가로’ ‘아주 먼 옛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등 유명 CCM도 합창곡으로 편곡해 부른다. 마지막 무대는 ‘너로 인하여 주께 감사해’ ‘우리는 주의 지체’ ‘주는 반석’ 등으로 장식된다. 총무 강평근 목사는 “곡이 특정 장르에 치중돼 있지 않아 여러 동포들이 함께 즐기

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연주회 입장은 무료다. 이 연주회에서는 부부 단원인 박재웅 목사, 박경숙 사모가 ‘주기도’ ‘하늘의 주’ 등을 임경해 씨의 율건 반주로 들려주며 쥘이 플남성선교합창단이 특별 출연, 다채로움을 더한다. 2006년 창단된 목사장로부부찬양단은 그동안 목회자 위로의 밤, 이민문학 심포지엄, 광복절 찬양제 등에 초청받아 연주했으며, 목회자 자녀 장학기금 모금 연주회 등의 의욕적인 활동을 펼쳤다. 매주 월요일 오후 7-9시 나성영락교회 소망관에서 연습하며, 음악을 사랑하는 신실한 이들의 가입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818-468-8672 (총무 강평근 목사) 김준형 기자



LA선교집회 첫날 예배를 마친 후 성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둘째줄 정중앙)고창수 목사.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엘림장애인선교회 고창수 목사 LA선교집회 열려

고창수 목사(엘림장애인선교회 사무총장) LA선교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2일과 15일은 사랑의 피선교회(담임 김천환 목사)에서 열렸고, 마지막 집회는 오는 22일(주일) 가든 그로브 갈보리선교회(담임 김성희 목사)에서 열린다. 고창수 목사는 LA사랑의피선교회에서 열린 첫째 날 집회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마 5:13-16) 주제의 설교를 통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한다. 예수 향기가 배어나야 한다. 그럴 때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며 “예수를 믿고 소금과 빛의 사람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날 카이로스 워십팀(대표 김민경 선교사)는 몸찬양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고창수 목사 LA 마지막 선교집회는 오는 22일(주일) 갈보리선교회(904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에서 열린다. 한편, 엘림장애인선교회(대표

회장 박명순 목사)는 한국 본부를 중심으로 미주 지역 LA, 하와이, 뉴욕, 시카고 등에 지부를 두고 활동하며 장애인들을 섬기는 단체다. 매년 1회 여름산상대부흥성회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2천여 명 이상의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영혼구원에 헌신하고 있는 단체다. 올해 26번째 맞이한 이 대회는 지난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국중앙기도원에서 열렸다. 메르스 전염병 확산 위험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집회가 취소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군장병들의 지원과 수백 명의 자원 봉사자들의 헌신으로 대규모 집회가 무사히 치러졌다. 이 성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부흥성회가 되어 한국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후원문의는 사랑의피선교회 김천환 목사, 전화 213-736-6625 나 이메일 bolmusa@hotmail.com 으로 하면 된다. 이영인 기자

JAMA다민족연합기도대회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다민족연합기도대회가 열린다.

- *일시: 11월 29일(주일)
- *시간: 오후 4시 30분-8시 30분
- *장소: 애나하임 컨벤션센터 (디즈니랜드 옆)
- *주소: 800 W Katella Ave., Anaheim, CA 92802
- *문의: 323-933-4055 714-336-4378

GMU초청의 밤

세계 선교비전을 이루는 GMU(그레이크이스미선대학교) 초청의 밤(오픈 하우스)이 열린다.

- *일시: 11월 24일(화)
- *시간: 오후 7시
- *장소: GMU 예배실 (은혜한인교회 미라클센터)
- *주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 *문의: 714-525-0088
- *이메일: admissions@gm.edu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회장 백석영 목사)에서는 한 해를 마감하며 선후배 동문들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자리를 만든다.

- *일시: 12월 5일(토)
- *시간: 오후 5시
- *장소: 왕성(중식당)
- *주소: 1199 N. Euclid St. Anaheim, CA 92801
- *문의: 714-517-1945



샌퍼난도밸리교협 월례회 열려

샌퍼난도밸리교역자협의회 11월 월례회가 베다니한인교회(방수민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곽덕근 목사의 사회로 드린 예배에서는 방수민 목사는 사무엘하 3장 31절-37

절을 본문으로 다윗의 리더십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다. 광고는 문일명 목사(한우리교회), 축도는 김인식 목사(웨스트힐교회)가 했으며 이원준 전도사(Altrua HealthShare 대표)는 의료니눔사역을 회원들에게 소개했다. 이인규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교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1. Doug Fields (Executive Director, Home World's Center)
2. Eugene Cho (Lead Pastor, Quest Church)
3. Harold Kim (Senior Pastor, Christ Central)
4. Shawn Gordon (Pastor at We Are Church)
5. DongWhan Kim (National Director, KCCUSA)

2015 미주청년학생 Conference

GO BEYOND

HIGHERCALLING15

<http://gohighercalling.org>
Dec.21-24, 2015 /San Diego
 Early Bird/\$180 by Nov.16, Regular/\$200 by DEC.7, Walk in/\$240, DEC21

2015HCC Office / 1636 W. 8th St. #100 Los Angeles, CA 90017 / Tel : 213. 389. 5222 Fax : 213. 389. 5200 E-mail / la2015@highercalling.org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14:12)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 5:18-31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1.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 함으로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성벽도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하여 범죄한 자기 백성들의 죄 값을 치르게 하시면서 속히 깨달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생활과 바벨론에서의 노예생활은 세상적 조건으로 볼 때는, 호적도 없는 노예 신분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신 예레미야 29장 11-13절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동맹으로 삼아 쓰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느부갓네살 왕을 치셔서 7년이란 세월을 벌판에서 미친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임을 알아보고 제대로 섬긴다면,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왕의 자리에서 몇 년을 더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았습니다.

2.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지 않는 인생의 최후

본문은 바벨론의 일곱 번째 왕인 벨사살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요직에 있는 부하 일 천 명을 위해 잔치를 열고는 술을 마셨습니다. 벨사살 왕은 왕

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은과 금으로 된 그릇들을 모두 가지고 오라고 명합니다.

이 은, 금 기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던 것들인데, 이들은 이것으로 술을 마시면서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그들의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다니엘 5장 5절을 보면 “그 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했습니다. 이것은 길조가 아닌 흉조가 분명하다고 느낀 왕은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행위를 알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불안해하며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 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을 불러 “무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드리우고 그로 나라의 세째 치리자를 삼으리라”(단 5:7)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높이 세우고 자기 다음가는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뜻을 풀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불안해 한다는 말을 들은 왕의 어머니가 나아가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단 5:11-12)고 하는 말에 왕은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벽에 써진 글의 내용을 해석해 주면 자주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드

리우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고 다시금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마다하고 그 글의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벽에 쓰여진 글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메네”는 세어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이고, “데겔”은 달아보라는 뜻으로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바르신”은 기본적으로 나뉜다는 뜻이 있습니다. “베레스”는 “바르신”의 복수형으로 앞에 “그리고”에 해당하는 ‘우’를 붙여서 왕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벨사살은 선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일들을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습니다.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재를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로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죄로 그날 밤 죽임을 당합니다.

BC 539년 하나님은 메대와 바사(페르시아) 연합군으로 하여금 바벨론을 치

게 하였고, 그날 밤 바벨론은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로 넘어갔다(단 5:31)고 본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바벨론 왕 벨사살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계산해 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처리해 가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적인 성과를 위하여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고 기대가 새로워지면, 우리에게 대한 기대만큼 관심과 대접도 반드시 달려져 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가지고 교만해지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더욱 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세상 것은 배운 것이 없어도 성령의 가르치신 지혜와 감동에 의해서 영적수준이 성숙돼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새로워지고 관심과 대접이 확실히 바뀌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달라지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America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후원의 밤 및 D.Min. 개설 감사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일꾼들을 양성하는 AEU(미성대학교)후원의 밤을 아래와 같이 거행하면서 평소 대학을 위해 기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성결 가족 여러분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 일시** 2015년 11월 29일(주일), 오후 4시
- 장소** AEU (미성대학교) 채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 연락처** T(323)643-0301, F(323)643-0302
- 주관** AEU (미성대학교) 이사회
- 초청인** 이사장 김광렬, 총장 류종길



가치있는 선택 Q water

무한 나노 에너지 산소수

최첨단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고유의 물 특성은 그대로 살리고 순수산소의 입자를 일반물보다 수백만배 이상 용해시킨 물입니다.

Q water

중류공법으로 탄생한 무한 에너지의 음료 **플로** 전기를 분해하거나 고속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친환경적임 세포속의 노폐물을 제거하여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여 젊음을 유지 나노기포가 1ml당 2억개 이상 용존되어 용존량이 지속적 유지 나노에너지 산소수에 대한 실험 및 분석을 통한 과학적 검증 다양한 분야로 적용가능하며 타제품과의 용이한 결합성

예로부터 물 좋은 고장 장성에서 천연 그대로 살아있는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특수한 중류 공법과 EPU(Energy Processing Unit) system, G.K Oxy9(주)의 물 1ml당 200억개 이상의 산소와 수소를 고농축 시킬 수 있는 원천기술이 융합하고 무기포용해장치를 통해 물속에 산소를 완전 용해시켜 인체에 가장 유용한 산소 농도의 상태(30ppm이상)를 유지하는 전세계 유일의 나노에너지 산소수이다.

천연 그대로 살아있는

신선한 물

나노에너지 산소수 Q water는?

전립선, 당뇨, 아토피, 여드름, 관절염, 통풍에 아주 좋은 효과

▶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면역력 및 면역 조절능력이 2배 이상 증가하여, 질병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높여줍니다. 병원균을 치사율에 가깝게 인공 감염 시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 검증 하였습니다.

Q water를 체험한 여러 사람들이 Q water의 효능을 인정하고 애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임상실험을 통해 더욱 많은 체험 사례와 효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 마시기 편합니다.

물이 부드러워, 물 마시기 어려운 환자들도 이 물만은 마실 수 있습니다. 물의 순환작용이 빨라, 마신 후 소변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 생체기능을 맞추어 줍니다.

수일 내에 번비가 없어지고 피로감을 억제하고 피를 맑게 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 15년간 당뇨병을 심하게 앓아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당뇨후유증의 하나로 매일 아침 발바닥이 몹시 쭈시고 마치 바늘로 마구 찌르는 듯 해서 한동안 걷지도 못하는 Diabetic Nerve Pain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Q-Water를 약 1주일 간 마셨더니 놀랍게도 그 발바닥 통증이 거의 사라져서 가뿐히 일어나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혈당수치 조절도 기대하며 계속 Q-Water를 마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조 - 미주한인재단 글렌데일 지회장 - 태권도 공인 7단
- 전 월서경찰위원회 회장 - 한인사회에서 범죄피해자 상담(CVA)으로 30년간 봉사

Quality water 나노에너지 산소수 Q water의 필요성

물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 흡수가 빨라 인체에 다량의 산소를 공급합니다. Q water는 3~4일 만에 몸이 좋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Q water를 마시면 맑은 숲 속에서 느낄 수 있듯이 머리가 맑아지고 상쾌해 집니다. 명인들의 연구결과 암, 고혈압, 당뇨, 아토피, 임산부, 수험생, 환자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 나노에너지 산소수란 일반물보다 산소가 풍부하게 녹아있는 물

최첨단 나노기술을 이용, 고유의 물 특성을 그대로 순수산소(99.9%)를 일반물보다 5~20배 용해시켜 놓은 물로, 용전산소는 인체의 건강과 수명에 커다란 영향이 있다.

▶ 산소는 물로 마셔야 효과가 더욱 좋다.

물로 마시는 산소는 호흡하는 것보다 5배 이상의 흡수효과가 있다.

ELIM USA, INC.
1201 S. State College Blvd., Fullerton, CA 92831

www.elimwater.com | www.urimul.co.kr
Tel. 213.235.7360
213.909.4499

디톡스삼 & 대리점
판매원 하실 분
모십니다.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김성민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 F.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inlandchurch.org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최승묵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 베이 지역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 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uschurch.com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정영희 담임목사

드림교회
"주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심장'으로 섬기는 교회 (월: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박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목요영성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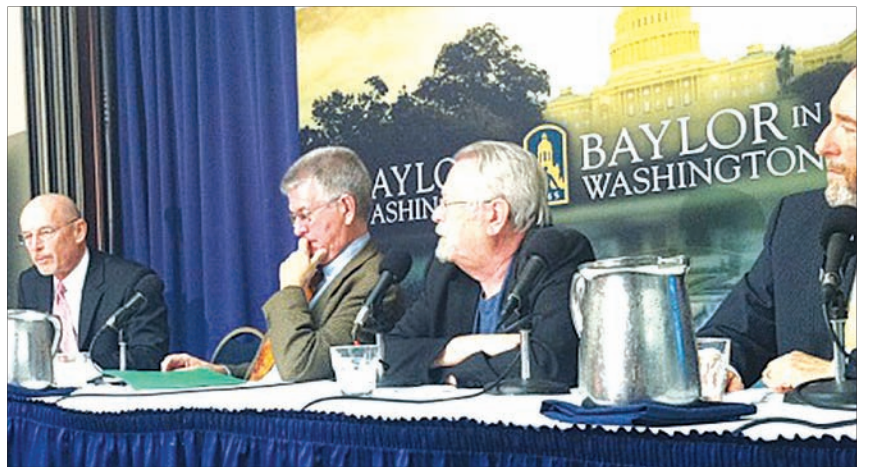
최호년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패널 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

“미국 기독교 교세 하락? 잘못 알려진 것”
베일러대 교수들, ‘세속화된 신화’ 비판

베일러대학교의 저명한 학자들이 지난 10일 “미국 기독교 교세가 하락하고 있다는 내용들은 대부분 잘못 알려진 것이며, 실제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포스트에 의하면, 이날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한 베일러대학교 종교연구학과 교수들은 ‘세속화된 신화’(sacularization myth)에 초점을 맞춰 토론했다.

이들은 다양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 “미국 내에 무신론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믿게 하는” 언론들을 비판했다. 특히 특정한 종교나 교단에 속해 있지 않은 개인들이 증가하고, 많은 주류 교단의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종교가 죽었거나 무신론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회과학자이자 베일러종교연구소(Baylor Institute for Religion Studies)의 설립자인 바이런 존슨(Byron Johnson) 교수는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때로는 언론에서 잘못 해석되기도 한다”면서 일례로 ‘미국인 중 44%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종교를 떠나고 있다’는 퓨리서치센터의 발표를 들었다.

그는 “퓨리서치의 연구 결과는 많은 미국인들이 원래 속했던 교회나 교단을 떠나 다른 교회나 교단으로 옮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약 44%의 미국인이 신앙에서 떠나고 있다’

고 보도했다. 우리는 이를 사람들이 교회를 바꾸는 현상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생명력과 건강함의 기준으로 보는데, 다른 이들은 이를 신앙 포기로 해석한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자료에 넣어 분석했거나 자료를 잘못 분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존슨 교수는 “최근 출간된 ‘진리의 승리’(The Triumph of Truth) 저자인 베일러대학교 로드니 스타크 사회과학 교수는 켈럽의 설문조사를 인용해 기독교의 인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종교 역사를 가르치는 J. 고든 멜턴(J. Gordon Melton)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주류 교단들의 교인 수가 줄긴 했으나, 미국의 교단 수는 지난 1960년대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현재는 약 1,000개”라면서 미국종교백과사전과 2010 미국종교인구를 근거로 인용했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미국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미국 내 교회들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멜턴 박사는 또한 “지난 65년에 걸쳐 일부 교회의 회원수는 줄었으나 동시에 수 백개의 새로운 교단들이 세워졌다. 미국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동안 교인들은 4배 이상 증가했고, 이는 여전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강혜진 기자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빌리그래함전도협회(BGEA).

“무슬림 이민 통제 안하면 미국에도 테러 닥쳐”
프랭클린 그래함...정부 지도자들에 각성 촉구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무슬림 이민을 통제하지 않으면 “파리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테러 사건을 미국의 문 앞으로 불러들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리스천포스트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그래함 목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와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예전에도 이런 말을 했고, 그때 사람들은 나를 비난했었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민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 테러에 대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슬림 이민자들이 미국 국경을 아무런 통제 없이 넘게 해서는 안된다. 계속 해서 무슬림 이민을 허용한다면 파리에서 일어난 일보다 더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 문 앞에서 말이다”고 주장했다.

그래함 목사는 또한 프랑스와 유럽이 지금 “젊은 무슬림 청년들로 가득 차 있다”며 이로 인해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대통령과 정치인들 모두가 너무 늦기 전에 깨어나야 한다. 정치적 정당성을 따질 때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미국의 안보 역시 위협에 놓여 있다.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위협에 놓여 있다. 미국이란 나라와 미국인의 삶의 방식을 파괴해 버리기 원하는 어떤 정치적 집단이나 종교적 집단도 이 나라에 발을 들여놓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파리에서 지난 13일 벌어진 테러 공격은 18일 현재, 132명의 희생자와 350여 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내전과 테러리즘을 피해 유럽으로 이민을 희망하는 무슬림 난민 수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서 벌어진 이 테러 사건으로 유럽 내 무슬림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함 목사는 과거에도 수차례 무슬림들의 미국 이민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이로 인해 많은 비난 역시 받았다. 특히 지난 7월 16일 체터누가 군 시설에서 무슬림 이민자에 의해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그는 “무슬림들의 미국 이민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무슬림이 극단주의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면 된다”며, “그들은 무함마드와 이슬람이라는 자신들의 종교를 위해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일부 목회자들은 “외국인 혐오증적인 발언”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워드라이프처치의 브라이언 잔드 목사, 인터바시티 그래픽 오 부회장, 윌로우그릭처치의 린 하이벨스 목사 등은 “복음주의자로서, 그리고 미국인으로서 그래함 목사의 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순현정 기자



IS총기난사 테러로 우울한 시간을 맞이하게 된 BATACLAN 극장 전경.

<파리에서 온 선교편지>

“IS 테러로 ‘깊은 슬픔’에 잠긴 파리 거리”

그날은 11월 13일의 금요일이었다. 두 부를 사러 파리 시내에 나갔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늘아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이 13일의 금요일이네요?” “아 그러네...”

세상에서 만든 희한한 날이 바로 오늘 이라며 서로 웃고 말았는데,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몇 시간 후 테러로 인한 참사의 소식이 들려왔다.

텔레비전에서는 생생한 현장 상황과 함께 사상자의 숫자가 계속 자막으로 올라왔다. 급히 교회 리더들 카톡방에 문자를 보내며 각 가정교회별로 식구들의 안전 확인을 부탁했다.

“그그룹 모드 안전하게 잘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6그룹도 모두 집에 잘 있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다급한 소리가 들려 왔다. “선교사님! 소영 자매가 테러가 발생한 5분거리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날인데 지금 손님들과 함께 식당불을 모두 끄고 문을 쾅쾅 잠근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당밖에서는 종소리가 계속 들리고 비명소리와 함께 경찰 사이렌 소리까지 뒤섞여 공포의 분위기는 극에 달했다고 한다. 전화로 문자를 보내며 기도할테니 두려워 말라고, 다른 식구들의 안전을 모두 확인한 후 소영자매와 그 식당안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그룹 카톡방을 열어놓은 채 온 교회 성도가 함께 기도했다.

우선은 무슨 일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새벽 2시를 넘긴 것 같다.

상황이 좀 안정 되면서 감사하게도 소영자매가 무사히 귀가 함을 확인한 후 텔레비전 뉴스에 귀를 기울였다.

밤 9시를 조금 넘긴 시간 독일과 프랑스의 축구경기장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그것을 시작으로 무려 6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테러 및 총기난사와 인질극이 벌어졌다는 소식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BATACLAN 극장에서의 약 15분간 벌어진 무차별 총기난사극이었다.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극장 뒷문으로 도망나와 총맞은 가족을 질질 끌고 골목을 빠져나가려 애쓰는 한 남자의 영상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그 당시 사망자가 120명을 넘어섰고 병원에 실려간 부상자 중 99명이 죽음의 고비에 있는 상태라는 상상 못할 참사 소식이 계속 전해졌다.

몇 시간 후면 아침 8시부터 교회에서 토요일예배를 드려야하는데 방송에서는 토요일에는 모든 학교들의 문을 닫고 또한 모든 각종 모임을 다 중단하고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하라는 대통령의 당부가 있음을 보도했다.

다시 교회 리더들에게 연락하여 모든 교인들에게 토요일 아침예배가 없음을 공지했다. 프랑스에 온 지 20년만에 처음으로 공식예배를 드리지 못한 날이었다.

각자 집에서 나라를 위해 또 갑자기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해 또한 테러리스트들을 공황히 여겨달라는 간구를 하자는 약속과 함께 안전이 확인 될 때까지는 집밖으로 나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감사하게도 토요일 저녁쯤은 나라 전체가 안정을 차차 찾아 갔고 주일에는 무사히 모여 추수감사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정말 특별한 감사예배였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렘29:7)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딤후2:1-4)

우리는 이 말씀으로 내가 밟고 있는 땅을 위한 중보기도가 부족했음을 회개하며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로 인정하며 바로 우리 때문에 이 땅이 환란을 당했음을 자복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눅 6:27-28)

또한 현재 사망자 최소 132명, 부상자 최소 349명, 그중 중태 96명이라는 사상자를 낸 테러집단 이슬람 IS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이러한 비극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했다. 아직도 꿈인듯 먹먹하기만 한데, 이 비극의 사건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또렷하게 나에게 물어보셨다. “넌 죽을 준비가 되었느냐?”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는 테러 사건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듯하다.

지금 당장 죽음을 당한다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해 더욱 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땅이 되길, 또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되길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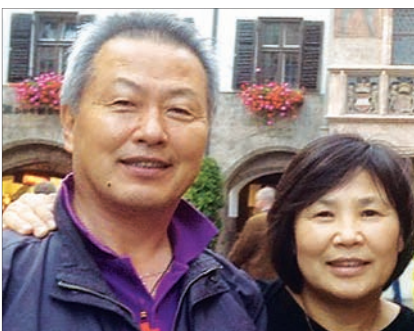
이들은 교회가 3가지 P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이 중 하나는 사람들(People group)이고, 또 하나는 협력자(Partners: 카운티 내의 교회나 전도 단체), 또 다른 하나는 10년 안에 그들이 닿기 위한 계획(Plan)이라고 했다.

‘임무 완성’(Finishing the Task) 이틀을 가진 전도여행 웹사이트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다. 우리는 마지막에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모든 열방이 그의 보좌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방식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 임무를 끝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지역 교회들이 입양한 종족들 내에 고유한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약 3,226개의 미전도종족이 있다. 이들은 복음을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들도 없다.

미국 새들백교회의 리 워렌 목사와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책 목사가 서로 힘모아 미전도종족 전도에 나섰다. 이제 우리도 적극적 전도자로 나설 때다. 그것이 또다른 테러 방지를 위한 대응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시는 IS의 파리 테러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의 손을 모아본다.

프랑스 파리 은혜교회 송석배·김은영 선교사



송석배·김은영 선교사 부부

Advertisement for O.C. / 엘바인 지역 churches, listing various congregations like CMF선교회, NEXT 사랑의교회, UBM교회, 남가주 베델교회, 남가주순복음교회, 늘푸른선교회, 디사이플교회, 베델한인교회, 엘바인 아름다운교회, 엘바인 한민음교회, 영광빛복음교회, 오렌지카운티제일장교회, 은혜한인교회, 토기장이교회, and others, including their addresses and contact information.

33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HQ구연산은 도매가 이하로 고객 직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점이나 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으므로 타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연산을 드실 때 신맛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미네랄 건강소금을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건강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HQ구연산의 효과에 대한 명성은 3백만병 판매 대박 히트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첫 출시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양으로 고객님들을 모시다보니 더 이상의 보너스를 드리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낼 만큼 고객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와 실험 그리고 임상을 거쳐 100% 천연 물질로 각종 암과 난치병, 그리고 **아토피와 더불어 면역 결핍**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라팜-22**가 출시되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

오리지널10병 + 미네랄 화색 소금2봉지(2LB) = \$460 **\$100** No Tax

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핀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뿐해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장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아.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옴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맑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오십견으로 고생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염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니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를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경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만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목을 먹는 꼴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 이부경박사 현, 건강과학연구원장, 청주교육대학 대우 교수, [주요 저서]: <노벨상감의 건강박사>(당뇨병 치료법)의 다수. [상훈]: 녹조근정훈장, 철탑산업훈장, 녹조근정포장 등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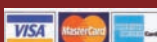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 개신교 선교 인물사(6)

랄프 D 윈터 (1924 - 2009)

개신교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을 현대 선교의 역사적 관점으로 조명해 봄으로써 오늘날의 선교전략 연구 및 실행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자료는 양태철 목사(GMI(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은혜한인교회) 선교팀장) 제공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랄프 D 윈터 (Ralph Dana Winter)

랄프 D 윈터는 현대선교를 3시대로 분류하고, 미전도 종족 선교의 불을 붙이며, "미션 퍼스펙티브스"의 선교 교육으로 현대 세계선교에 크게 이바지한 선교사다

윈터(Winter)는 부친인 휴고 H 윈터(Hugo H. Winter)의 영향으로, 공학 기사가 되기 위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공부하였으며, 그 이후, 콜롬비아 대학교 사범대학(Columbia University)의 석사 과정을 거쳐, 코넬 대학교

(Cornell University)에서 언어학, 인류학, 수확통계 분야의 박사 학위(Ph.D.)를 받았다. 신학 공부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하였다.

윈터(Winter)는 1951년, 로베르타 헬름(Roberta Helm)과 결혼하였으며, 이들 부부는 1956년부터 10년간 선교사로서 과테말라의 마야 인디안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였다. 이때, 윈터(Winter)는 제임스 에모리(James Emery)와 함께 신학 연장교육(TEE,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을 창안하였다. 이러한 윈터(Winter)의 신학 연장교육에 깊은 감동을 받은 맥가브란(McGavran)은 그를 풀러 신학교대학원(Fuller Theological Seminary's School of World Mission)의 교수로 청빙(聘請)하였으며, 그는 1966년부터 10년 간 교수 사역을 하였다.

윈터(Winter)는 10년 간 풀러 신학교대학원에서 가르친 다음, 1976년에 미국 세계선교센터(USCWM, US Center for World Mission)를 설립하게 되었다.

센터(17 에이커)를 구입하는데

1,500만 달러가 필요했으나, 가지고 있는 돈 100 달러를 계약금으로 치루고, 나머지는 수년간 모금해서 충당하게 되었다. 이 센터는 선교교업을 완수하는 각종 선교전략과 단체가 세워지는 미국 선교의 요람(搖籃)이 되었고, 그 영향력을 널리 끼치게 되었다. 2015년에 그 명칭을 "The Venture Center(www.frontierventures.org)"로 변경하여,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다(캘리포니아 파사데나 1605 E. Elizabeth St.)에 위치하고 있다.

윈터(Winter)가 세운 기관과 사역으로는 윌리엄 케리 출판사(William Carey Library Publishers, 1969), 퍼스펙티브스 훈련과정(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1974), 윌리엄 케리 국제대학(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1977), 개척 선교회(Mission Frontiers, 1979), 개척 선교학 국제저널(International Journal for Frontier Missiology, 1984)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세계 선교에의 기여에 대하여, 2005년 타임지(Time magazine)는 그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



세계 선교를 위해 윈터가 세운 기관들.

의 지도자 25인 중 한 명으로 선정했으며, 2008년 북미 선교 지도자 회의(the North American Mission Leaders Conference)는 그가 선교학 발전에 남긴 업적을 기려, 평생 공로상을 수여했다.

특히 그의 가장 큰 업적은 개신교의 선교 방향을 미전도 종족 선교로 선회(旋回)하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즉, 그는 1974년 7월의 스위스 로잔(Lausanne)에서 열렸던, 세계 복음주의 선교대회에서 '새 마케도니아(The New Macedonia - A Revolutionary New Era in Mission Begins, 퍼스펙티브스, p 565-584)라는 강의를 통해서, 선교가 다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약 27억에 이르는 미전도 종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윈터(Winter)의 이러한 강조는 전 세계 교회들로 하여금, 미전도 종족 선교에 관심과 실천을 하게 하는 강한 동기가 되었다. 아울러, 1974년부

터 실시한 선교 교육 프로그램인 '퍼스펙티브스'(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를 통하여, 전 세계의 수많은 크리스천들과 교회들로 하여금, 세계 선교에 동참 및 헌신하도록 하였다. 윈터(Winter)는 '네 사람, 세 시대, 두 전환기: 현대선교'(p 553-64)에서, 다섯 번째 사람으로 들어가도 충분한, 현대 선교의 일획을 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소천하시기 두 달 전 보았던 그 모습, 천국에서 다시 보오리...



양태철 목사 GMI(은혜한인교회) 선교팀장

“선교, 개인과 민족의 틀 넘어 구원 바라보는 것”

KPMA 컨퍼런스 개최...김명혁·최바울·문창욱 목사 강사로

한국목회자선교협의회(KPMA)가 9-10일 상주 열방센터에서 '목회자 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교회 목회자 6백여 명이 참석해, 중동 IS 사태 이후 급변하는 시대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10/40장 미전도종족 선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증폭됨을 강조했다. 컨퍼런스 주강사로는 김명혁 목사(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최바울 선교사(인터콥선교회 본부장), 문창욱 목사(큰터교회 담임)가 나서,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선교 사업 완성을 위한 헌신과 기도를 요청했다.

김명혁 목사는 '선교철도'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김 목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성경의 모델이 있으며 이는 예수님이시다. 그 분을 본받아 우리가 버리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예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신 것처럼

떠남 없이 있는 선교가 있을 수 없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던'(요 1:14) 역사적 사건이 우리 삶의 비전으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바로 이런 신앙이 조선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와 더불어 주기철·손양원 목사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순교로 이어져 왔고,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최바울 선교사는 '언약과 선교'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예언)가 이루어지는 시대와 역사의 전개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평소 성경을 교리적 관점에서 읽지만, 특별히 역사적 관점으로도 읽는 것이 중요하며, 성경에 기록된 역사 예언과 그 성취의 관점에서 종말론적 구속사를 조명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바울 선교사는 인간의 타락 직후 창세기 3장 14-15절의 구속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악의 세력 간 지속적 긴장이, 역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될 것"임을 설명했다.

특히 "IS의 등장과 함께 극단주의 이슬람이 국제운동으로 발전한 것은 종말론적 현상의 하나"임을 지적한 최바울 선교사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은과 금은 없으나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초기 한국교회의 영성 회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갈이 오리라"는, 주님의 절대 예언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목했다. 그는 "우리가 때와 시는 알 수 없으나, 종말의 절대조건이 있다"면서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교회 부

흥은 목회자들이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할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문창욱 목사는 '성령이 이끄시는 선교'(행 1:8)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1998년 큰터교회를 개척한 후 오직 선교하는 교회를 비전으로 해서 지금까지 전적으로 선교를 위해 헌신했다고 강조했다. 문창욱 목사는 "지역교회가 규모나 재정에 있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선교도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개척교회로 시작한 초기 3개월 이후 줄곧 선교사 파송을 이뤄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 철저히 말씀과 기도에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목회자 컨퍼런스에서는 이 외에도 현장 선교사 간증, 선교 비전을 통해 영적 각성이 일어난 지역교회들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강혜진 기자



한국목회자선교협의회 '목회자 선교 컨퍼런스'. ©KPMA 제공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겨울학기 학생모집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5년 겨울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

- 1. 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 2. 신학 대학원
 -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 3. 일반 대학교
 -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 * 이번 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일 : 2015년 9월 21일(월) ~ 11월 27일
 겨울학기 개강일 : 2015년 12월 07일(월) ~ 2월 12일
 봄 학기 개강일 : 2016년 2월 15일(월) ~ 4월 22일
 여름학기 개강일 : 2016년 5월 16일(월) ~ 7월 22일

4. 홈스쿨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천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찬 홈스쿨링은 크리스천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앞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

겨울학기 등록 안내 : 2015년 12월 7일 까지 등록 마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TEL : 213 705 7778
www.GreenMWild.com . GreenMWild@Gmail.com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 C554e Colour B&W 55/55 ppm
- C454e Colour B&W 45/45 ppm
- C364e Colour B&W 36/36 ppm
- C284e Colour B&W 28/28 ppm
- C224e Colour B&W 22/22 ppm
- Dual Scan ADF 160opm Duplex
- Dual Scan ADF 80opm Simplex
- Emperor Drive!
- USB Print
- Colour Internet Fax
- Mobile Support



Simitri with Biomax *Optional : Fax & Finisher

미국 부흥과 회복 위한 “2015다민족 연합기도대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대하7:14)

“이 땅을 고쳐 주소서”

11월 29일(주일)
오후 4시 30분-오후 8시 30분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1. 기독교 종주국 미국

미국은 결코 무너지서는 안될 중요한 나라이며 부흥을 통해서 다시 영적, 도덕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일어나 기독교의 종주국으로서 세계교회를 이끌어 가야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신 축복들과 자원들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나라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밖에 없는 도를 넘은 배도와 무죄한 피흘림(나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제도 파괴와 쾌락과 방종이 자행되고 있으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다.

이 나라를 세우셨고 인도하셨고 특별한 사랑으로 축복하셨던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으니 떠나시라는 듯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추방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2. 2016년은 중요한 선거의 해

특별히 내년은 11월에 대통령과 하원의원 전원, 상원의원 1/3, 일부 주지사 등 이 나라를 이끌어갈 중요한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을 때이다.

한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을 때이다.

우리는 지난 7년간 오바마 대통령 치하에서 이 나라가 얼마나 신앙적, 도덕적으로 바뀌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다.

만약, 내년 선거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잘 준비된 대통령과 주지사들과 지도자들이 뽑히지 않는다면 성경적인 교회들과 목회자들, 기독교인 공직자들, 기독교 기업들,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엄청난 불이익과 박해를 당하게 될지 모르며 어쩌면 미국은 회복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하게 될지도 모른다.(지금도 어떤 교단의 일부 교회들은 엄청난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공직자들은 성경적 신앙을 지키다가 공직에서 쫓겨나가거나 피소되고 있고 성경적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실천하는 기업들이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것들은 시작에 불과하다. 땅을 치며 후회할 때는 미리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던 일들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3. 미국을 위해 기도할 때

지금은 이 나라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비상하게 기도할 때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통령 후보와 주지사 후보들, 연방의원 후보들이 임후보하고 그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

또한, 이 나라 국민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만한 지도자들을 뽑아야 한다. 새로 선출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다.

3. 위기 속 대부흥 위해 기도해야

우리가 가진 중요하고 확실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대부흥들은 대부분 지금같은 위기 상황에서 뜻있는 기독교인들이 성경 대하7:14 약속의 말

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결과로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겸비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부터 부여 주신 부흥이다. 그리고 부흥의 결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모든 부도덕은 없어지고 나라가 새롭게 변화 되었으며 도덕부흥, 선교부흥과 경제부흥이 있었다.

따라서 지금은 부흥을 통한 나라의 회복을 위해 비상하게 그리고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할 때다.

4. 한인교회가 기도의 불 붙일 때

오늘날의 미국 백인교회들은 그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것이 현실이다. 한인교회들이 계속 기도의 불을 붙여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우리 한인들이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한다. 지금 우리가 잠잠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지난 해 11월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이후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아 전국 7대 도시를 순회하며 나라를 위한 연합기도대회를 가졌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도 내년에 50개 주를 돌면서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를 갖고 내년 선거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들을 선출하자고 호소하겠다고 했다.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도시마다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한다.

이 중요한 시기에 지난 해에 이어서 올해도 11월 29일(주일) 오후 4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애너하임 컨벤션센터(7000명 수용)에서 한인교회 주도하여 ‘2015다민족연합기도대회’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이 다민족연합기도대회에 대해 남가주의 모든 한인교회들이 주변의 다민족교회들과 더불어 마음과 기도를 합했으면 한다.

부흥운동의 뇌관을 핀을 뽑는 기도가 되어 미 전국에 걸쳐 기도와 회개와 부흥운동이 타오르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부흥을 보내셔서 이 땅을 고치시는 다민족 연합기도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간절히 당부한다.

◆주관: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JAMA, OC 교회협의회

◆장소: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 (800W Katella Ave., Anaheim, CA 92802

◆문의: 323-933-4055

●권혁승 칼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권혁승 교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10)

주기도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다. 기도는 창조주이시자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런 점에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 주는 신앙고백서이기도 하다. 기도는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한 그대로 실천해야 바른 기도이다. 예수께서 실천이 없는 기도

는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경고하신 것도 그 때문이다(마 6:7).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중 하나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이다. 그것은 우리가 드릴 기도 내용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 준다.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중심 메시지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

첫째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의 방향성(方向性)이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바른 기도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기도는 나의 생각이나 계획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

엇인지를 먼저 분별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기준과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도 바른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롬 12:2)고 권면하였다.

둘째로 하늘과 땅의 상합성(相合性)이다.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신앙 안에 하늘과 땅의 만남이 함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중 합창곡이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탄생하셨던 때,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하늘의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

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성탄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께서 땅의 기쁨이 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께서 주시는 삶의 참 기쁨과 행복으로 하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의 궁극성(窮極性)이다. 우리의 기도를 궁극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세심하게 들어 주실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시 121:4).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앞서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시는 분이시다(사 65:24).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마 6:32).

우리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그것은 소극적 차원의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며 그 뜻을 실천하는 적극적 차원의 기다림이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기다림이다. 기다릴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도의 우선적 응답일 수도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목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목사의 신앙고백입니다

“ECA에서 안수받고 장기간 사역보고를 못하였거나 목사안수를 받고도 소명이 흔들리는 목사님들의 참석을 권합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가 은혜롭습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이 좋습니다”

이것은 복음전도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흔들리면 성도가 흔들립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자기 신앙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청지기목회자학교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대상 1. 이만목회자 2. 선교사 3. 목사안수신청자
(신학생들은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목회현장의 숨소리를 강사들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김승식 교수 골든게이트 목회학 "교회개혁과 재정학보"	 김재영 교수 ITS 신대원 (조직신학) "복음이관"	 민승기 목사 오렌지교회 수석부회장 "이만목회관"	 이병규 목사 체플린스쿨 영어인턴부담장 "영어인턴부의 영어설교"
 이준성 선교사 ANC은누리교회 선교목사 "비즈니스선교와 목회"	 조승최 목사 군목대위 "군목동 체플린사역"	 곽부환 목사 한아름교회 "설교자의 갈등"	 김경렬 목사 ECA 코디네이터 "목사안수와 교단"

겨울강의 12월 7~9일
소망장로교회 (성요셉 목사)
Tel(310)502-9999 반드시 예약이 필요합니다. (TEXT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내주세요)
520 S. La Fayette Pl. #505, LA, CA 90057

USCRC Pastoral Education(청지기목회자학교)
Tel(310)502-9999 • 2850 Ocean Blvd #200, Santa Monica, CA 90405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내 인생을 비춘 31일 성경통독

이대희 | 브니엘 | 280쪽

저자는 “성경은 리듬을 타고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성경도 이런 리듬 속에서 기록됐고 연대기와 저자의 순서에 따라 배열돼 시대적 사실과 교훈이 혼합돼 있기 때문에, 매일 같은 분량을 정해 읽거나 성경이 배열된 순서대로 읽는 것은 오히려 성경통독을 힘들게 한다는 것. 책은 간결하고 다양한 내용으로 31일 만에 성경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들이 사는 마을

스콧 새비지 편지 | 느린걸음 | 320쪽

‘좋은 삶을 살아낸’ 아미시 공동체 이야기이다. 미국 비영리단체 ‘소박한 삶을 위한 모임’ 격월간지 ‘Plain’에 실린 글을 엮었다. 종교적 이유로 기계문명과 소비주의를 벗어나 ‘소박한 삶’을 지향하고 있는 이들의 기록. 심지어는 손으로 활자를 조판하고 목판화를 새겨 태양열 수동인쇄기로 잡지를 만들고 있다. 가장 급진적 종교개혁가 후예들의 가장 평범한 삶. 원제 ‘The Plain Reader’.



미명의 그리스도인

김지철 | 아드폰테스 | 180쪽

‘미명의 그리스도인’이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영적 미생’들이다. 저자는 열두 제자들 중 가롯 유다와 베드로, 요한 등 8명과 향유를 부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까지 총 열두 명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역사를 뒤바꾸는 복음의 산 증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 준다.



가슴 뛰는 선물

임부용 | 두란노 | 216쪽

홀트국제아동복지회 아시아 프로그램 담당 부회장인 저자는, 지난 45년간 꺼져 가는 작은 영혼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되돌려 주는 아동복지와 입양사업에 반평생을 바쳤다. 아이들은 죽음의 기로에서 기적처럼 살아나 새로운 부모를 만났고, 가정의 평온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사랑은 그 피보다 더 진하다.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우리는 무엇으로 ‘Good(선하다, 좋다)’을 판단하나?”

날마다 선악과를 먹고 사는 이 세대...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본능? 양심? 도덕? 법률? 내가 혹은 우리가 얻을 유익? 우리는 무엇으로 ‘Good(선하다, 좋다)’을 판단하는가?”

보람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즐비한 세상이다. 그런데 누가 봐도 선해 보이는 것, 나와 우리가 막연하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그 숭한 것들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 《순종》, 《존중》 등으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 온 존 비버 목사가 신간, 《Good or God? 무엇이 선인가》를 통해 선의 가면을 쓴 악한 세상에서 매일같이 선악과 주위를 맴도는 이 시대 크리스천들의 속 실상을 살펴본다.

성경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사건처럼, 사람의 눈에 옳고 합리적이고 현명하고 유익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많은 선택과 길이 있음을 보여 준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이 좋고, 지혜롭다 여기는 것들을 여과 없이 선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당연시한다. 존 비버는 이 책의 서두에서 실제로 선과 악은 겉으로는 명백하게 구별할 수 없다고 밝힌다. 사탄은 선의 가면을 쓴 ‘가짜 선’의 모습으로 우리 생활에 치밀하게 스며들고 있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 위해 틈을 노리고 있다.



GOOD or GOD?
존 비버
두란노 | 363쪽

이 책은 총 6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선해보이는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를 다루고, 2부에서는 ‘내 삶’을 주

장하는 한 ‘가짜 선’에 휘둘릴 수밖에 없음을, 3부에서는 인생 내비게이션을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 선택할 것을 주문하고, 4부에서는 끝까지 사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임을 상기시켜 준다.

제5부에서는 ‘좋은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으라 권하고 마지막 6부에서는 ‘진짜 선한 삶’을 시작할 것을 권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는 착각이, 선악을 혼동하는 삶을 낳는다고 경고한다.

겉보기에 세상은 세월이 흐를수록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선의 기준이 흐려지고, 점

점 더 하나님의 권위에서 멀어지고 있다.

존 비버는 내 나를, 우리 나라는 세운 막연하고 어렵듯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말씀을 취사선택하지 말고 실제로 성경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지킬 것을 종용한다. 그것만이 갈수록 불법이 심해지는 이 세상에서 개인과 공동체는 물론, 전 세대를 살리는 길이다. 이제 그 삶을 시작하라! 진짜 선한 삶은 우리를 옥죄는 의무가 아니라 인생을 자유롭게 한다. 한계 없는 그분의 선하심을 받아 누리라!

이영인 기자

감사의 계절

선물권 대매출

한울한울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Gold Finger Tailor

직접 재단/직접 재봉
맞춤 정장/명품 옷수선

T: (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김병호
Master Tailor

쿠폰소지자 한함
20% DC
Coupon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왕영배터 스탠드포함 \$65 (왕영배터 10개 포함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주님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참가하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 더욱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 차량), 제작, 반죽물인쇄 전문
www.junimedia.com

1. 전도용품 세일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전도용품 1,000set(\$180) 고급양공 왕영배터 1set에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2. 전도물티슈 **볼펜**
전도물티슈 1,000set(\$180) 고급양공 왕영배터 1set에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3. 세기말 및 방문자 선용용 찬양, 설교시디 앨범
찬양대장지 또는 방문자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합니다!**

5. 왕영배터 (스탠드 포함 \$65) **10개 \$3000!**
각종 행사용, 전도용품, 선용용품에 구비되어 있으나 왕영배터로 왕영배터의 더욱 다양한 종류의 왕영배터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툰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FDA 인당상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방송인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자골드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I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인 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응전혈을 자극함으로써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골든씰 Golden Seal **천연항산화제**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격음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2015년 초음파 리프팅 V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기념 세일
*초음파 리프팅 V라인 4회 \$999, 2주 초소피드 다이어트 Free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2주 초소피드 다이어트 Free

- 초소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부터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만성두통, 요통

치아미백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편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301 East 23rd St. Carson 90805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The front of the Bataclan concert hall, where one of the attacks occurred, was covered and taped off from the public on Tuesday. Photo courtesy of Eun-Young Kim.

In Light of Paris Attacks, Christians Point to Prayer and Gospel Action

BY RACHAEL LEE

The world was taken by surprise by the attacks that took place in Paris on Friday, which left some 130 people dead, and over 350 people injured. In response, multitudes of people and most major organizations took to publicly sharing their responses of grief and solidarity with the French people.

Christian leaders and organizations were no exception in quickly expressing their solidarity through statements online and through the media.

"We echo the words of our brothers and sisters in France who said: 'France is not alone! At this time, millions of Christians around the world are praying for our country.' Yes, we are praying for France and Lebanon, and we call on churches around the world to join us," said Efraim Tender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 are with them in deep compassion and prayer," stated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e pray that they may be comforted,

by the love and care they have received from those who have now brutally been taken away, and by the support and solidarity of others, of their families, and of their neighbours -- whoever or wherever that may be."

Other than prayer, some suggested specific ways that Christians can take the grief and compassion and put them into action.

Mike Evans, the director of Evangile 21, the French branch of The Gospel Coalition, encouraged fellow Christians to "reach out to our Muslim friends and neighbors with acts of kindness but above all with the message of the prince of peace," rather than resorting to "indiscriminate acts of revenge and violence."

In its statement, the Presbyterian Church, U.S.A. (PCUSA) expressed its disagreement with governors' and politicians' plans and stances to limit or deny entry into the U.S. for refugees in response to the Paris attacks, and encouraged Christians to "choose welcome, not fear," as its statement was titled.

"The way to end terror is to

prove that those who demonize us are wrong," the statement reads. "We are not a heartless secular culture. We must witness to the Gospel with generous hospitality. To hide in fear is a mistake. Fear is the ammunition of terror. Hope is the best defense."

A "witness to the Gospel" was emphasized urgently by many. Mike Evans of Evangile 21 said the violence compels people to realize that "death is suddenly real."

"Questions about evil abound in the face of unimaginable and indiscriminate violence," Evans said. "Now is the time to proclaim the gospel of Jesus Christ as never before."

"Some rush immediately to political or even ideological reasons behind the acts, but our workers understand the spiritual dimension of darkness in the world and the reality that violence can erupt anywhere and any time," Mark Edworthy, the top strategist in Europe for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s missions agency, told the Baptist Press.

"Our workers have one driving thought: 'Paris needs Jesus.'"

Planting a Church to Call Family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Pastors, XXIV: Rev. Jeya So

BY RACHAEL LEE

With a vision to be a family for those who feel like they don't belong, Reverend Jeya So and her husband, Reverend Daniel So, planted Anchor City Church together in San Diego in January of 2014.

After having served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setting for most of their 15-year ministry career together, the couple felt God was leading them to plant a church, Ms. So said.

"Both my husband and I -- we're both learners, and we like to absorb a lot of information. And we started to think about the movement of the church in America and worldwide, and thought about the ways that we're plugging into that picture of what God is doing globally. That's kind of how it all started," she continued.

For them, an aspect of church that they particularly wanted to focus on was the concept of family -- a place of belonging. Among the various ways she describes Anchor City Church, Ms. So describes it as a "third culture church."

She says the idea comes from the term, "third culture kid," or TCK. Though today, TCKs are often used to refer to people who have moved around often and to several different countries, the original meaning of the term pointed to those who have grown up in a culture different from that of their parents. Ms. So said that both she and her husband, as second-generation Korean Americans, often felt they didn't know to which culture they truly belonged.

"When we were young, we often went to schools where we were one of ten Asian kids in the entire student body," Ms. So said. "I realize that's changed quite a bit now.

But back then, I remember being told that I wasn't quite American. I came to the U.S. when I was 18 months old, but I just thought that maybe I wasn't really American since all of my 'American' friends ate mac and cheese at home. But I would visit my grandmother in Korea, and she would say that 'that American person has come to visit,' referring to me. And so, I didn't quite feel Korean either. So there was this feeling as though we were outsiders in both cultures, and a sense of, 'Who am I?'"

Hence, Ms. So said, she and her husband felt led to plant a church with an emphasis on family culture, and to build a church that becomes a place of belonging -- not necessarily for "TCKs," but for all who may feel that "they're on the outer edges of society." Today, the church has grown from 12 starting members in 2014 to some 50 regular members of primarily young adults and young families.

"Our hope is that they would come in and feel comfortable and find that they could belong to a place and believe in a God who loves them as their father," Ms. So explained.

Undoubtedly, planting a church presented unique challenges from the beginning. The first challenge they faced, Ms. So said, was trying to answer the question, "Does San Diego need another church?"

"I mean, of course, churches everywhere are needed in their respective communities, but there were a lot of good people doing a lot of good ministries, and we just asked ourselves, 'Is there something new or something we could add to come alongside them?'" Ms. So recalled.

Indeed, there are some 1,000 Protestant congregations that meet in San Diego,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2010 U.S. Religion Census: Religious Congregations & Membership Study. Yet, of the total population of the county, less than 10 percent (9.77 percent) identified themselves as being Protestant. Some 56 percent identified themselves as having no religious affiliation.

"We heard that new church plants is the most effective way of bringing about new believers," Ms. So said, and added that they decided to plant the church remembering that "church planting is a call to evangelism."

"There are people out there who need the gospel, and we realized that there is a way that we can reach them that other churches haven't. Every church is reaching different people, and even if it is the same people we're reaching, that's OK because we all have something to bring to the table," she continued.

Yet another internal challenge they faced was figuring out whether their hearts were in the right place in deciding to plant the church.

"We said from the very beginning, very clearly, this church cannot be planted because we're angry or dissatisfied," Ms. So said. "For anyone, you can experience burnout when you work too hard, and we've experienced our fair share of burnouts in our different churches. So we asked ourselves, 'What in this process is coming from hurt or bitterness or despair or fatigue, and how do we let it go?' And we just prayed, 'Lord Jesus, please help us. If there's bitterness, turn it into joy because we're able to say that this is coming from you.' We prayed a lot."

This particular challenge was layered with the challenge of approaching their church staff at

Rev. Hyeon Soo Lim's Family, Church Ask Canada's New Leaders to Secure Lim's Release

Canada's New Prime Minister Urged to Speak with World Leaders on Lim's Behalf

BY RACHAEL LEE

The family of Reverend Hyeon Soo Lim, a Korean Canadian pastor who has been detained in North Korea for over nine months, has expressed hopes that the new Canadian leadership would take action to secure Lim's safe return.

Justin Trudeau, the Prime Minister of Canada who assumed office earlier this month, has already attended a meeting with global leaders at a G20 Summit in Turkey on Monday, and has also been attending an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meeting in the Philippines this week from November 18 to 19.

"We are hoping that the Trudeau government takes full advantage of whatever means and platform available, i.e. APEC, to bring international awareness to Mr. Lim's detainment that would help move diplomatic talks to a speedy and positive resolution," said Lisa Pak, the spokeswoman for Lim's family and church.

The status of Lim's condition remains unclear. The last and only time Lim made a public appearance was in late July in a televised press conference that was released to the public through North Korea's news agency. During the press conference, Lim admitted to alleged crimes that he plotted to overthrow the government. Since then, little has been heard about his condition or the progress being made for his release.

Since Lim's detainment in early

February, pastors and leaders in Canada, the U.S., and South Korea have written letters calling on the Canadian governmen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the United Nations to take appropriate actions to ensure Lim's safe return home. Prayer meetings have also taken place on Lim's behalf, including in Los Angeles, Philadelphia, Atlanta, and New York.

"Pastor Hyeon Soo Lim went to help people in North Korea solely for a humanitarian purpose, purely to put the love of Jesus Christ into action," said a letter from pastors in the greater New York area written in March. "We call 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release Lim and allow him to return safely to his family and loved ones, and we call on the Canadian government and the United Nations to put in their efforts to help secure his release."

"We deeply regret that this [Lim's detainment] has happened, and we ask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make favorable arrangements as we are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Reverend Lim's health," wrote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KPCA), the denomination that Light Presbyterian Church is affiliated with, in June. "Lim's detainment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potential opportunities for humanitarian aid in North Korea, and the humanitarian aid organizations all over the world will be paying close attention for Lim's release while he is detained."



Reverend Jeya So is the co-lead pastor of Anchor City Church, located in San Diego, CA. The church was planted in January of 2014.

the time and letting them know of their plans to plant a church. The process came not without tension, Ms. So said, but ultimately, the process stretched both her and her husband in personal ways, and the church gave them their blessings.

"Both of us are middle children, and the stereotype of middle children is that they're conflict avoiders," Ms. So explained. "We're both pretty spot on in that. So it was difficult to work through some of that tension in the process... but it really helped us to narrow down why we were doing what we were doing, and to be okay with being in the midst of tension sometimes. We thought, 'If this is what God is calling us to do, this is just going to be a blip on the screen.'"

When Anchor City Church held a special service when the congregation first moved in to its current rented space, the leaders invited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many of the members of the previous church at which Mr. and Mrs. So were serving also joined and showed their blessings and support for their ministry. Ms. So described the moment as "a huge testimony of the graciousness of God."

"Because God is so loving, he was able to promote peacefulness in the church," Ms. So said. "That's

a huge value for us in terms of how we planted this church."

And finally, yet another challenge that the church leaders are still figuring out is determining the success metrics for the church. One thing they do know for sure, though: it's not about the numbers, Ms. So said.

Their focus is not so much on quickly adding to the number, but taking the time, if necessary, to invest in people, she explained.

"We're largely a word of mouth church, and one of the things we emphasize a lot is true discipleship in Christ -- bridging that Sunday to Monday gap... If you're really called to live out discipleship, then you should be reaching out to your friends and neighbors. Not just seeing them as a check mark, but because you have a deep, loving, Christ-like care for them. That's really how we see it. And that process could be a lot slower in terms of getting people in through the door of the church."

"Our hope and prayer is that all of the folks that come through the doors, that we would invest in their lives, and help them to love Jesus more and more -- so much so that their lives are being transformed and changed, and that they are loving and caring for their neighbors, coworkers, and friends."

“한국행 가장 싼 항공권~ 하나투어로 문의주세요” 서울 왕복 항공권 스페셜 이코노미 \$985 | 비즈니스 \$3645

★ 하나투어만의 성지순례 체험 특전 - 십자가의길 순례체험 ★

[예수님의 걸음걸음 - 성서 속으로] 요르단/이스라엘 10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마가복음 11:11)



하나투어 기독교 성지순례는 왜 다른가요~??

- ▶ 기독교 성지순례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한 전문 상담가와 상담 및 운영
- ▶ 성지 순례상품 선택의 폭을 넓여주는 다양한 항공 이용과 합리적인 가격
- ▶ 순례자를 위한 감동 서비스! 믿을 수 있고, 안전한 현지 행사
- ▶ 성격의 이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전문 가이드 와 전문 인솔자 동행

처음 성지순례를 떠나는 순례객들에게 안심맞춤~ 구약의 핵심을 볼 수 있는 여정입니다.

[요르단] 성경의 땅

- ◆ 영화 [인디애나 존스]의 촬영지로 유명한 新 세계 7대 불가사의 페트라 순례
 - 페트라 시크길, 엘카즈네 사원, 야외 원형극장, 수로 등
- ◆ 세례 요한의 순교지 마케루스
- ◆ 길이 1.2km에 이르는 좁은 페트라 시크길
- ◆ 엘카즈네 사원, 야외 원형극장, 왕들의 무덤, 나비티안 유적, 수로 등

[이스라엘]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던 그 곳. 역사와 종교가 살아 숨쉬는

- ◆ 신비로운 바다 사해에서 부영 체험
- ◆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갈릴리 순례
 - 가버나움, 베드로 수위권교회, 오병이어기적교회, 팔복교회
- ◆ 예수님이 첫번째로 기적을 베푸신 가나와 나사렛 순례
 -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 마리아 수태고지 기념교회
- ◆ 기독교 최고의 성지 예루살렘 순례
 - 감람산과 감람산 주변의 기념교회
 -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십자가의 길과 골고다 언덕, 예수님 무덤교회

\$2999

출발일: 2016 1/25

상기 요금은 항공 예약 및 발권 시점에 따라 요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신앙 체험의 현장에서 순례의 감동을 더해 드리겠습니다. 성지 순례도 역시 1등여행사 하나투어와 함께 하세요~



[신들의 여행 ZEUS]

하나투어가 선사하는 아프리카 여행 두바이(2박) + 아프리카 7개국 16일

겨울 시즌(12월~4월) 동물들의 이동을 보실수 있는 곳은 탄자니아의 세렝게티와 응고롱고로 뿐입니다

★ 하나투어는 세렝게티 국립공원, 응고롱고로 국립공원, 킬리만자로 트래킹 포함 입니다.★ 세련된 호텔과 다양한 특식은 기본! 생생한 사파리 체험까지 내생애 특별한 여행을 선사해줄 아프리카 여행을 놓치지 마세요

\$10,500

성수기 및 연휴에는 항공요금의 인상으로 인해 상 품가 변동이 있습니다. 2016년 2월 17일 (LA 출발 기준)

- * BIG 5 사파리 게임 드라이브 관광
- * 아루샤-세렝게티 구간 경비행기 탑승 포함.
- * 잘보고 !!! 모든 여행자들의 로망, 대자연이 숨쉬는 미지의 대륙에서 동물의 왕국 여행
- * 잘먹고 !!! 지역별 현지 특식 포함 (야마초마, 선셋크루즈, 랍스터, 보마식 등등)
- * 잘 자고 !!! 전일정 4성급, 5성급 위주의 현직 최고 호텔과 롯지 숙박.
- * 전일정 사파리 전문 한국어 하나투어 인솔자 동행

타사 절대 비교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이제 여행 갈때는 오직 하나만 기억하세요”

HNT 하나투어 213.736.1212

무료전화: 1.877.464.6121

www.usahanatour.com 3053 W. Olympic Blvd #101 L.A., CA 90006 <올림픽과 하드모어>

- 엘에이 본사 : 213.736.1212
- 뉴욕 직영사무소 : 212.706.9177
- 라스베가스 사무소 : 702.723.4977
- 하와이 직영사무소 : 808.947.1212
- 한국에서 전화하실때 : 070.8224.4021

Nizmobile 해외에서 편리한 렌탈폰 서비스 이제 로밍폰보다는 렌탈폰! 선불 결제로 더욱 편리해진 니즈 모바일 선불폰! 한국여행이 더욱 편해집니다. 하나투어에서 렌탈가능! 시간단축! (\$600상 Pre Pay 가능)